인터뷰

제일제당 왕석호 대리

예술적 감각, 마케팅 및 공학적 사고 겸비

외국의 포장산업이 점진적인 발전을 해왔다면 우리나라 포장산업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우리나라 포장산업이 현재의 위치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다 퇴근한 후에도 텅 빈 사무실에 남아 포장연구에 몰두해 온 숨은 포장인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굵직한 전화 목소리와 잘 어우러지는 검은 얼굴에 곱슬머리, 작은 키, '제일제당'이라고 쓰인 가운을 입은 왕석호 대리가 이러한 포장산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장본인 중의 한 사람이다.

"다른 유능한 포장인이 많은 데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 주셔서 영광입니다."라며 겸손의 말을 잊지 않는 왕대리는 매체와의 인터뷰가 처음이라 그런지 시종 긴장된 표정으로 기자의 눈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제일제당 포장개발팀은 포장개발과, 구매과, 구매기획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원은 부장 한 명과 각 과에 과장 한명씩, 그리고 부서원 등 총 21명으로 되어 있다. 그중 왕대리가 소속한 포장개발과에는 인원이 8명인데 앞으로 더 보강할 계획이라고.

"처음에는 인천 2공장 식용류 부서에서 포장관련 업무를 10여년 정도

맡아 보다가 90년 4월에 회사에서 포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규부서를 만들면서 포장디자인팀 창설 멤버가 되었죠. 그리고 작년 9월에 디자인과 소재가 분리되면서 물류개선실 산하 포장개발팀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포장전문 부서와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을 그렇게 밝히며 왕대리는 어느 부분의 연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루트'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마케팅이 브랜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가 넓어져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포장인들은 끊임없이 아이템을 찾기 위해 선진제품의 시장조사, 해외 지점망을 통한 신상품에 대한 정보입수,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토대로 원인 분석하여 그것을 다시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상품의 얼굴로써 모든 면을 고려해야 하는 포장의 설계시 어려운 점으로 계속적인 기술개발에 비해 원가절감이 뒤따라 주지 않고, 가공기술과 포장설비가 서로 비례되지 않는 문제, 포장설계사가 기계설비에 대한 지식과 마케팅 사고력도 겸비해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개최한 '92 우수상품전'에서 그가 설계한 백설표 고급유 용기 포장이 대상을 받았는데 국내 최초로 시도한 것이라 관련 부서를 설득하느라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람도 컸다고.

"최근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부의 규제도 심해진 만큼 더욱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여 공간 비율을 최소화하는 콤팩트한 포장과, 재질도 가능한 난분해성은 피하고 포장횟수도 가능한 1차 포장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대리는 포장이 단순히 상품을 감싸고 보호하는 측면이 아닌 상품을 알리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만큼 앞으로 신세대 포장인들은 예술적 감각과 상인적인 기질, 공학적 사고를 모두 갖춰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상품이 품질은 앞서는데 디자인과 포장이 뒤져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포장인들의 할 일이 너무도 많다며 자신도 지금보다 나은 포장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포장전문지에 바라는 점을 묻자 "신포장 동향이라든지 포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정보지이기를 바라며, 앞으로 『포장정보』도 시사정보, 국내외 업계동향, 포장인의 지침서 역할, 이 세가지를 만족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그동안 후배들에게 양보하느라 미뤄온 포장관리사 교육을 받기 위해 성급히 일어서는 왕대리의 모습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느낍니다"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화학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2녀를 두고 있으며, 인천공장 근무시 탁구 챔피언을 했을 만큼 탁구광이기도 하다. 〈이선하 기자〉

제일제당의 왕석호 대리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주최한 '92 우수상품전'에서 그가 설계한 '백설표 고급유' 용기 포장이 대상을 받았을 만큼 탄탄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는 공간점유를 최소로 한 콤팩트한 포장과 난분해성 포장재 사용의 지양, 포장횟수도 가능한 1차 포장으로 끝날 수 있도록 포장설계시 환경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한다.